

# 작가의 개인적 삶과 프라이버시

## 제임스 조이스의 손자가 토로하는 고통들

서양작가 중에서 제임스 조이스만큼 문학평론가와 전기작가들의 집요한 추적을 받은 사람도 드물다. 조이스의 작품을 작가 개인의 생활사와 관련지어 해석하려는 사람들은 조이스 일가에 대한 백과사전적인 자료수집을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인다. 조이스와 여관의 하녀 출신인 그의 아내 노라, 그리고 정신분열증을 평생동안 앓았던 딸 루시아는 그 자체만으로도 세인들의 술한 호기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던 것이다. 하지만 유명작가에 대한 호기심은 막상 당사자인 가족들에게 그다지 달갑지 않은 것도 사실. 제임스 조이스의 손자인 스티븐 제임스 조이스가 유명작가의 후손으로서 겪어야 하는 고통을 토로한 글이 있어 그 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

1988년 6월 나는 브렌다 매독스의 「노라 : 물리 블룸의 진짜 생애」(*Nora: The Real Life of Molly Bloom*)를 읽은 다음 루시아 고모가 나와 아내에게 보냈던 편지를 모두 없애버리겠다고 선언했다. 그것들을 어떻게 없앴는지는 조이스 연구가들의 풍부한 상상력에 맡기기로 하였다. 단지 태워버리지는 않겠다는 점만 밝혀둔다.

폐기한 서신들은 모두 루시아 고모와 우리 사이의 개인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것들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돌아가신 훨씬 뒤에 씌어졌으며 그분들에 대한 언급은 단 한 구절도 없다. 폐기된 것 중에는 새뮤얼 베케트가 고모에게 보낸 엽서 몇통과 전보도 포함되어 있다. 이것 역시 베케트의 요청에 따라 없애버렸다.

후손들이 자기 선조인 작가의 개인적인 글과 편지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그렇게 간단치 않다. 작가가 직접 쓴 글을 후손들이 함부로 폐기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에는 나도 동의한다. 그렇지만 작가 주변의 가족들이 쓴 글은 성격이 조금 다르다. 그것은 프라이버시의 문제다. 프라이버시 역시 기준이 명료한 말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이 아무리 유명할지라도 그의 인생에는 개인적으로 덮어 놓아야 할 부분이 있다고 나는 굳게 믿고 있다. 많은 조이스 연구가들은 그의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선 가급적 그의 인생에 관한 많은 정보를, 아니 그의 인생 전체를 살살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말 그런지는 의문이다. 적잖은 평론가들이 작품은 작가와 별개로 떼어놓고서도 얼마든지 이해될 수 있으며,

### 작가 개인의 생활사와 관련시켜 작품을

### 해석하려는 연구자들이나

### 전기작가들의 '극성'은 그 작가의

### 가족들까지 과도한 호기심의 대상으로

### 만든다. 그러나, 그것은 호기심이

### 당사자인 가족들에게는 그다지 달갑지

### 않은 듯, 최근 제임스 조이스의 손자인

### 스티븐 제임스가 유명작가의

### 후손으로서 겪는 고통을 털어놓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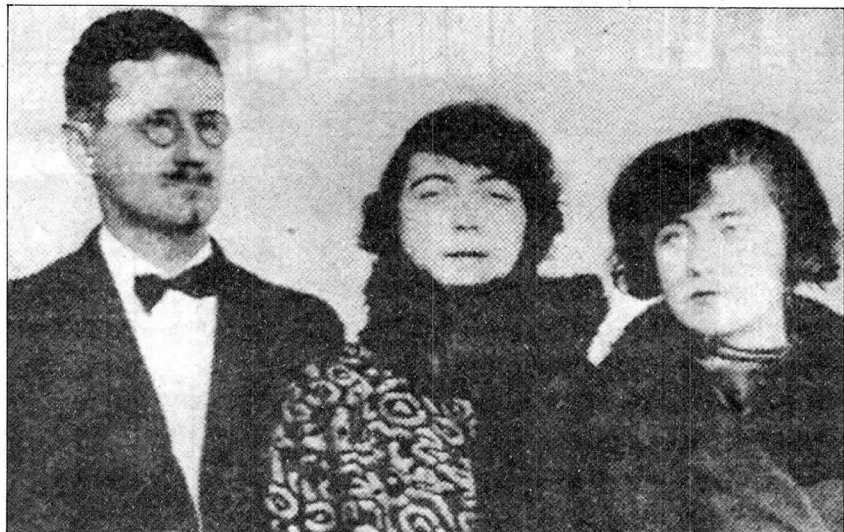
### 화제가 되고 있다.

그 자체로서 충분한 독립성을 갖고 있다고 진지하게 믿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함부로 내뱉은 말 때문에 고통을 겪어야 하는 주변 사람들은 그들의 안중에는 아예 없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자신들의 내밀한 삶이 무자비하게 침해당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1905년 10월25일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이렇게 써보내야 했다. “그 편지들을 잘 간직해요. 내가 당신한테 쓴 것들이니까.” 얼마후 그는 전보를 띄워 아내에게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시켰다. 당시 무일푼이었던 할아버지가 트리에스터에서 더블린까지 전보를 쳤던 것이다. 다행히 나는 문제의 편지들을 보지 못했다. 사이버문학자들의 관음증을 나는 혐오한다. 그분들이 어떤 환상을 좇았고 돌이켜 어떤 행동을 했건 그것은 두사람만의 문제이지 다른 사람이 끼여들 성질의 것이 아니다.

어떤 이들은 그런 편지와 서류들을 금고에 넣어두고 학자들에게만 열람을 허용하는 방법도 있잖느냐고 항변한다. 쓰라린 경험을 통해 나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카데미라는 세계에서도 남보다 한발 앞서 특종을 파내려는 경쟁심리는 도저히 막아낼 도리가 없었다. 만약 어떤 이에게 당신은 이 편지나 글을 이용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는 오히려 거절을 부각시키면서 갖은 억측과 추측을 남발한다. 따라서 유일한 해결책은 없애버리는 것뿐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할아버지가 쓴 작품이 읽는 이로 하여금 작가의 삶에 대해 알고 싶다는 억누를 수 없는 욕망을 불러일으킨다고 항변한다. 나는 그 점에 동의할 수 없다. 예컨대 중요한 것은 물리 블룸의 독백과 여성의



제임스 조이스와 여관의 하녀 출신이었던 그의 아내 노라(가운데), 그리고 평생 정신분열증을 앓았던 딸 루시아. (1924년 파리)

섬세한 심리적 움직임 불가사의할 정도로 정교하게 묘사한 할아버지의 작가적 역량이 지, 그가 어떻게 해서 그러한 이해에 도달했는 가 하는 것은 아니다. 1956년 어느 겨울날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에서 할아버지의 작품을 각색한 공연을 관람하면서 나는 그것을 분명히 느꼈다. 물리 블룸의 독백이 이어지는 동안에 여성관객들이 보인 반응, 그녀들의 신음과 탄식, 안타까운 표정을 지켜보면서 나는 할아버지가 정말 위대한 작가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작가 제임스 조이스가 타계한 지 50년이 흐르는 동안 수많은 조이스 연구가들은 작가와 그의 작품들에다 엄청난 시간적 투자를 했다. 그들은 이 작품들을 감히 넘볼 수 없는 고아한 경지로 자꾸만 끌어올렸고, 대중들은 그 뒤를 말없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나 자신 바로 그런 덫에 빠졌던 어리석은 경험을 지녔기 때문이다. 바로 얼마전 내 직장동료 아가씨가 슬쩍 내 옆으로 다가와서 제임스 조이스의 「젊은 예술가의 초상」을 자기가 읽을 수 있겠는지, 또 그것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 조언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가련한 그 아가씨는 나에게서 그다지 자상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나의 요지는 간단하다. 할아버지의 책을 일단 무릎 위에 펼쳐놓은 다음 괜한 두려움일랑 던져버리고, 쓸데없이 주눅들지 말고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 나가라는 것이다.

어처구니없게도 이른바 내노라하는 학자들이 일반 대중들로부터 책읽는 재미와 즐거움을 앗아가고 있다. 나는 누가 나에게 어떤 책을

읽을 때 어디에 주안점을 두어야 하고 무엇이 중요하며 어떤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가르쳐주는 것을 원치 않는다. 「피네건의 경야」(*Finnegans Wake*)는 모르겠지만, 제임스 조이스가 쓴 그밖의 모든 작품들은 — 「율리시스」를 포함해서 — 일반인이면 누구나 읽을 수 있고 전부는 아니더라도 그 내용을 대부분 다 이해할 수 있다. 그것도 아주 흥미 진진하고 재미있게 말이다. 모든 예술이 그렇듯 그것은 취향의 문제일 따름이다. 어떤 사람은 좋아할 테고 어떤 사람은 싫증을 낼 것이다. 심지어 아이들까지도 제임스 조이스의 글을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내살 때 할아버지가 편지에 써주신 「고양이와 악마」와 같은 이야기도 있는 것이다.

물론 작품을 더 깊이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소한 것까지 물고늘어지는 학자들의 분석과 추론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이 학자들의 연구는 또 할아버지의 주요한 작품들 속에 깊이 박혀 있는 더블린 — 아일랜드의 뿌리에 관심있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충고는 한결같다. 할아버지에 대해서 그 가족에 대해서, 작품에 대해서 쓴 책을 읽기보다는 작품 그 자체를 읽으라는 것이다.

나와 처는 조이스 가문의 프라이버시와 명예를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오늘날과 같은 '기술전자' 시대에도 서양문명의 가장 밑바탕에 놓인 가치들은 인간의 존엄성이 살아있는 한 반드시 수호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근작 「뉴욕 타임즈 북리뷰」에서>